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023.12.06.(수)

01. ①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③ 20. ⑤

1.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이론 규범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이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정립이나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④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메타 윤리학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윤리 문제에 대한 벤담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으므로 쾌락은 계산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은 <문제상황> 속 A에게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 보라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자연법을 강조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 ② 칸트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 ③ 덕 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 ⑤ 밀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3.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모두 서로 존중하면서 열린 자세로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문제 상황이 변했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도 재반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 기회를 제한할 수는 없다.
- 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희망이나 욕구도 표현할 수 있다.

4.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의 ㉠에 들어갈 내용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이다. ㉠에 대한 반론은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인간 배아는 도적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다.'는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④ 모두 (가)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5.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한 윤리적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SNS를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을은 SNS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되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하는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⑤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갑과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 맹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에 대한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맹자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인 인륜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였다.

7.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법규 위반자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지만, 이 권력은 구성원들이 신탁한 권력이므로 입법권이 신탁의 목적에 어긋나면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홉스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다.

ㄹ. 로크는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구성원들은 신탁된 권력만을 통치자에게 준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홉스는 통치자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로크는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통치자가 가지는 권력은 구성원들이 신택한 권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 ㄴ. 홉스는 국가를 신의 계약으로 형성되는 인위적인 인격으로 보았다.

8. 음식 윤리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칠 정도로 음식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무절제한 태도를 경계하고 절제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고려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좋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것은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먹는 행위에서도 중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9.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시민들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으로 보았으며,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의 경계선 밖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 ㄷ. 롤스는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10. 예술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보았으며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도덕성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이 모두 이해 관심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미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므로 공통감을 불러일으키고 보편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미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의 상징이 되지만 미적 판단 능력이 도덕 능력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1.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와 루소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베카리아,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관점과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의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ㄴ. 베카리아는 독립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법을 통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ㄷ. 베카리아와 루소는 모두 사형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베카리아는 형벌의 일시적 강도가 아닌 지속도가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사형은 종신 노역형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ㄷ.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자는 더 이상 시민의 일원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2. 공직자 윤리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공직자 윤리로 절용(節用)과 청렴(淸廉)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청백리가 되려면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사익보다는 청렴을 더 중시하였다.

② 정약용은 공직자가 백성에게 자애로워야 하고[愛民], 자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⑤ 정약용은 세금으로 쓰이는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땀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아껴 써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13. 성(性)에 대한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성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 을은 성에 대한 중도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모두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

- ②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라고 본다.
- ③ 중도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본다.
- ④ 중도주의 입장에서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만이 아니라 사랑도 필요하다고 본다.

14.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 적용을 전제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ㄱ.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천부적 능력의 차별로(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롤스는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거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며,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천부적 자산이나 정당하게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ㄷ. 노직은 최소 국가가 소유물을 분배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노직은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ㄹ. 노직은 타인 처지 개선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자신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5. 자연에 대한 칸트, 싱어, 레오폴드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레오폴드이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보았지만,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대지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ㄱ. 칸트에게만 옳은 진술이다. 칸트는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성에 이로운 소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인간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장해야 하므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는 것은 칸트에게만 옳은 진술이다.

ㄴ. 레오폴드에게만 옳은 진술이다.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칸트는 이성적

존재,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싱어에게 틀린 진술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기준이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ㄷ. 싱어에게 틀린 진술이다. 싱어는 식물이나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16. 국제 관계에 대한 칸트와 모겐소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모겐소는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 간의 평화 상태 유지가 국제법이나 국제도덕이 아니라 세력 균형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칸트는 낯선 이방인이 다른 국가에 갔을 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환대권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국가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과 같이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는 적대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모겐소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자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 모두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겐소는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이 국제 정치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⑤ 칸트와 모겐소 모두 국제 연맹이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지닐 수는 없다고 보았다. 칸트는 독립 국가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면서 평화 연맹이 주권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겐소는 국제 정치가 독립된 주권 국가들을 이끄는 중심적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며, 개별 국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체는 없다고 보았다.

17. 삶과 죽음에 대한 공자와 장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공자, 을은 장자이다. 공자는 삶을 구하기보다 인(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道)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공자는 죽음보다는 현실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졌고, 도(道)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장자의 입장이 아니다.

④ 장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애도(哀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⑤ 공자는 삶과 죽음이 운명[命]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

았다.

18. 요나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의 행위가 미치는 범위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크기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기술로 얻은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미래 세대와 같이 비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까지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② 요나스는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 행위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 ④ 요나스는 인간이 의도적 결과는 물론 비의도적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요나스는 전통 윤리학으로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보장 문제와 같은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 원조에 대한 롤스,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싱어는 도덕적인 큰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ㄴ.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라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고,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롤스는 원조를 통해 무법 국가가 아니면서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싱어는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지만 정언 명령이 아니라 조건부적 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20. 종교 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한스 쿡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한스 쿡의 주장이다. 쿡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 평화가 요구되며,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편견 없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일은 평화로운 공존의 초석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 ① 한스 쿡은 종교 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한스 쿡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지닌 정체성과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의 진리를 용납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한스 쿡은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종교 간 대화를 강조했지만 하나의 참된 종교를 수립해야 한다거나 각 종교의 차이점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④ 한스 쿡은 세계의 주요 종교에는 비폭력과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등의 가치가 들어 있어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